

박물관문화 MuseumCulture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식지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Newsletter No. 14 Autumn/Winter 2008



이번 호의 인물 | 김보희 관장님

전시소개 | 비움과 채움

자유기고 | 우리 박물관 예전엔 이랬어요 | 김인호

테마기획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의 전시연계 교육 | 이정선

기증소식 | 박희진, 박효진

나의 도슨트 경험담 | 박주영

소장품 이야기 | 윤효정

2008 가을·겨울

그동안 건설공사로 인해 구석진 곳에 가려져 있던 박물관 건물이 학교 정문 광장에 그 모습을 다시 나타냈습니다. 박물관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기에 알맞은 탁 트인 앞마당도 갖게 되었고 정문에 제일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박물관 나들이 또한 더욱 쉽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은 무엇보다도 시간을 보내기에 즐거운 곳 즉 관람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과거가 즐거움을 느끼며 교감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도 단순한 관람에서부터 각종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에 이르기까지 박물관에서의 문화체험 모두를 궁극적으로는 즐거움을 통한 교육, 에듀테인먼트라는 하나의 목표로 통합함으로써 수 만점이 넘는 귀중한 소장품들을 그저 잘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가 아니라 배움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언제나 열려 있는 박물관, 언제나 함께 하는 박물관, 언제나 사랑받는 박물관,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입니다.



전시소개 | 2008-2009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전시회 - 비움과 채움



9월 10일에 개막한 이번 전시에서는 장르와 시대를 망라하여 "비움과 채움"이라는 하나의 철학적 고리로 유물과 작품들을 묶어서 선보인다.

1층 상설전시관 1·2실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도자, 회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유물 가운데 역사적·문화 교육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물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펴본다. "비움"은 도자기의 빈 공간, 회화의 여백과 같은 조형적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이성을 중시하고 물질세계를 강조해 온 서구정신과 대비되는 동양적 태도와 가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채움"은 뽀뽀하게 장식된 공예의장이기도지만 동시에 한국 미술에 나타나는 충만한 정신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2층 상설전시관 3·4실에서는 조선시대 목가구를 통해 삶 속에서 비움을 실천한 선비들의 삶을 조명해본다. 목가구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조건에 맞추어 여러 종류의 나무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적재적소에 이용하면서도 튼튼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였으며, 흙에 끼워 짜 맞추는 제작방식으로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의 가구는 유교의 청빈, 근검절약을 생활신조로 하여 대체로 소박하고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근·현대미술 작품 속에 나타난 비움과 채움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면 구성에 있어서 여백의 비워진

면과 전면구성의 채워진 면, 두 번째는 공간 구성에 있어서 도자기의 비어있는 3차원 공간과 조각의 양감이 차지하는 채워진 공간이다. 세 번째는 기법 상으로 흐리고 느슨하게 그린 표면과 재질감을 강조하여 진하게 칠한 표면의 대비이다. 또한 조형적으로는 꼭 채워져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비워냄을 뜻하는 작품이 있어 흥미롭다.



아래층 기증전시관에서는 지역 사회인사들을 비롯하여 교수, 동창, 봉직자 등 본교 관련 인사들이 본관에 기증한 유물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화 사랑"을 주제로 본교 총장 및 이사님, 봉직자,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이화가족의 헌신과 열정이 담긴 기증품이 소개된다.

담인 복식 미술관에서는 조선 시대에 우리 선조들의 의복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크게 평상복과 예복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최소한의 장식으로 담백함을 추구한 평상복에서는 여백을 통한 비움의 아름다움을, 화려한 색과 복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장식을 담은 예복에서는 충만한 채움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은 1973년도 2회 특별전으로 당시 남한에서 발견된 5기의 고분벽화의 벽화사진을 전시하는 "古墳壁畫" 전시를 개최하고 도록을 출간하였다. 도록은 35년이 지난 지금 보면 원색사진이 들어어가기는 했으나 인쇄질이 떨어지는 조악한 책이지만 그 당시로는 귀한 원색사진과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 기록이 담긴 획기적인 도록이었다.



신문에 게재된 순흥어숙묘의 연화도(1971. 8)

는 등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당시 김옥길 총장님이 발굴현장에 직접 방문하시어 발굴단을 격려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중요한 발굴이었다. 그 이듬해인 1972년에 경남 거창의 둔마리에서 벽화고분이 또 발견되는 것을 계기로 진흥섭 관장님은 점점 훼손되어 가는 順興於宿墓를 포함한 남한에서 발견된 고분벽화의 흔적들을 더 훼손되기 전에 1972년 당시의 정확한 상태만이라도 기록하고자 적외선 필름에 의한 촬영을 기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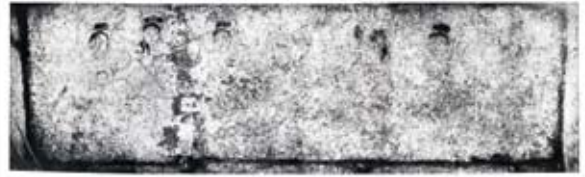


순흥어숙묘 발굴현장을 방문한 김옥길 총장과 진흥섭 관장(1971.8)

적외선 필름에 의한 촬영은 그 당시 고고미술사학계에서는 시도된 바 없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기술로, 당시 일본 출판사들이 일본인 사진작가들을 직접 데리고 와 우리의 문화재를 찍어 도록으로 출판하는 사업이 유행하던 시기로 본 박물관의 유물을 촬영했던 飯山達雄이라는 사진가와 협력하여 찍기로 하였다. 적외선을 찍어 적외선 필름으로 촬영하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한 번 붓자국이 난 것은 모두 보인다고 하여 성과를 진작 기대하였고, 이런 최초의 시도를 국가기관도 아닌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이 시도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으며, 이를 기획하신 진흥섭 선생님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혜안과 문화재보존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와 이를 뒷받침하여 준 학교의 배려에 새삼 고개가 숙여지고, 항상 남보다 앞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던 당시 이대박물관이 새삼스럽다.

국가기관에 의한 적외선 필름촬영이 시도된 것은 13년 후인 1985년 8월에 順興於宿墓 부근의 순흥읍내리 벽화고분의 발굴조사 시 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시도되었다.

촬영한 고분은 백제의 扶餘陵山里古墳, 公州宋山里6號墳, 가야의 高靈古街



거창 둔마리고분 벽화 적외선 촬영사진(1972. 12)

洞古墳, 신라의 順興於宿墓, 고려의 居昌屯馬里古墳 5기였으며, 거창둔마리고분은 문화재관리국의 발굴조사기간 중 촬영하였으며 순흥어숙묘 등은 봉분의 흙을 다시 제거하고 찾아 들어가 촬영하였다. 촬영은 야간에만 이루어졌으며 적외선 램프를 비추기 위한 전기시설이 없는 산속의 고분들은 군청에서 전기를 대여하여 산 속으로 끌고 올라가 촬영하였고 교통편이 원활치 않은 당시로는 장비와 인원의 이동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고분 내부는 아주 좁아 사람이 운신하기도 힘든 상태였고 적외선 조명등과 카메라가 설치된 상태에서 70이 넘는 고령의 사진가 할아버지의 촬영작업 자체도 고역인 작업이었다.

촬영 후 서울에 돌아와서도 여러 공정을 거쳐 하나의 벽화사진을 완성하였는데, 적외선 필름으로 촬영한 여러 장면의 사진을 인화하여 모자이크하여 붙여 요즈음의 파노라마 사진처럼 1컷의 사진으로 완성하여 이 사진을 다시 촬영하면 한 장면의 벽화사진이 완성되었다. 원색사진도 똑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또 특별전에 전시하기 위한 대형의 사진은 당시의 새한칼라의 이경모 선생의 특별 배려로 2m가 넘는 대형의 흑백사진을 한 장의 인화지에 인화하여 전시할 수 있었다. 지금 이대박물관 전문도서관에 걸려 있는 사진도 그 당시 특별전에 전시되었던 사진이며, 지금 이대박물관에 귀중본으로 보관되고 있는 벽화고분의 흑백 필름과 슬라이드 원판에는 그 당시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또한 1972년 당시 남한의 고분벽화의 상태가 담겨있는 유일한 자료로 영구히 보존하여야만 하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거창 둔마리고분 발굴조사단장 김정기 문화재연구소장과 적외선필름 촬영을 위한 이대박물관의 진흥섭 관장과 박물관원 4인(1972. 12)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의 전시연계 교육

이정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 talkwithsun@ewha.ac.kr

박물관은 옛 유물들의 의미를 찾아주는 전시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관람객들이 전시를 적극적으로 만나고 소장품들을 새롭게 해석하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색다른 문화체험이 있는 교육들을 통해서 박물관은 또 하나의 재미있는 배움터로써 과거의 유물로부터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전시와 연계되어 유물과 직접 만나고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기획된 소장품 특별전과 함께 학술강연과 답사 등으로 꾸준히 시행되어 왔다. 1995년 8월 김홍남 교수님께서 관장으로 부임하신 이후부터 이화여대 박물관의 교육은 전시와 함께 다양하게 기획되어

진행되었고 박물관에서의 전시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시와 연계된 교육은 1996년부터 상설전, 특별전이 열릴 때마다 전시와 함께 기획되었고, 그 교육 대상도 어린이 대상의 체험교육프로그램, 전문가

및 성인 대상의 학술세미나, 강연, 지역연계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세분화되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1996년에는 상설전과 연계된 「박물관과 어린이」교육프로그램, 1997년에는 <탐매... 매화를 찾아서>특별전과 연계된 다양한 특별강연들과 북한산으로의 「탐매 등산」이 진행되었다. 1998년 이화조각공원에서의 <우리 옛 돌 조각의 힘>특별전에는 「어린이 찰흙짓기대회」와 「흙으로 만든 돌사람」전시, 「어린이 돌사람 그리기대회」와 「돌사람 그리기」전시가 열려 이대부속 초등학교의 도예반, 미술반 아이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2000~2001년 <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특별전과 연계된 「우리는 어린이 고고대, 잃어버린 옹기를 찾아라」에서는 청자, 백자와 다른 '옹기'에 대해 학습한 후 박물관 앞의 가설 발굴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옹기를 발굴하고 이를 복원해 보면서 '고고학자', '유물복원전문가'라는 직업을 체험해보는 색다른 시간이 되었다. 2001년 <도요지 발굴성과 20년>특별전에서는 국제학술대회와 함께 도자기에 관심 있는 일반 관람객과 전문가들이 여러 가마터를 답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2002년에는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특별전과 연계되어 「한일 근·현대미술과 여성」 국제학술대회, 「작가와와의 대화」, 「필름상영회」가, 2003년에는 <미술 속의 만화, 만화 속의 미술>특별전과 연계된 「현대미술과 만화」 콜로키움과 「만화가와 함께 만화그리기」, 「희망시장」이 개최되어 전시와 작품에 대한 학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본교의 학생과 어린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였다.

이화여대 박물관은 기존 박물관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지역과의 관학협동 전시와 교육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와 박물관의 바람직한 연계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대학박물관의 문화·교육적 기능을 확장시켰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라남도 영암으로 영암의 구림도기가마

터를 발굴하였던 것을 계기로 하여 영암도기문화센터를 건립하였고, 1999년 <흙의 예술제·구림마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06년 <풍경으로 쓴 영암 건유기>까지 매년 도기문화센터와 관학협동으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전시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2001~2005년까지 28회의 '월출산 달맞이 공연'도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전시와 행사들은 영암 지역의 학생, 주민에게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라남도 영암의 전통적인 멋을 알려 지역문화를 활성화시켰다.

2005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은 증축재개관을 하였고, 2006년에 현대미술 전시관과 교육실을 만들면서 더욱 다양한 전시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상설전시관, 근현대미술전시관, 기증전시관, 담인복식미술관에서 상설전이 이루어졌고, 4개의



전시관에서는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고대 유물부터 근현대미술까지의 폭넓은 소장품이 새롭게 분류·선정되어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었다. 상설전시와 더불어 특별기획전도 1년에 1~2회 개최되었다. 그리고 전시와 함께 진행된 교육은 각 관의 전시 기획의도와 소장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에 중점을 둔 「전시체험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전시 기획의도와 전시된 유물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각 관마다 「전시체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상설전시관과 근현대미술전시관은 오늘날의 재미있는 소재와 놀이를 접목시키고 새로운 재료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담인복식미술관과 기증전시



관은 오늘날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유물들을 내 손으로 화려하고 예쁘게 재현해 볼 수 있도록 체험해 봄으로써 박물관의 유물과 작품들이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하였다. 매 학기마다 2~3개의 「전시체험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엄마와 함께 하는 전시체험, 꽃과의 대화」를 비롯한 「문양이 있는 옷 만들기」와 「꽃신 만들기」, 「문자가 춤추는 입체카드 만들기」, 「떨잠 만들기」, 「상상의 동물로 꾸민 퍼즐 만들기」, 「나비가 있는 삼작 노리개 만들기」, 「움직이는 동물인형 만들기」 등이 진행되었다. 전시를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들은 짧은 시간 동안 전시와 유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완성도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고 호응이 좋았다.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모님들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자녀들,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인근 문화기반시설과 학교, 본교의 연구기관, 부속기관 및 학교들의 호응을 얻어 유치원생부터 대학생, 외국인들까지 매 학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가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는 <비움과 채움>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관람객들이 소장품을 보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박물관에서 와서 볼 수 있도록 전시장의 상설 기능을 더욱 강조하였고 방학 중에도 개관을 하여 전시를 계속 관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 박물관의 전시연계 교육도 변화하고 있다.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전시의 성격에 맞추어 언제든지 도슨트의 전시설명을 들으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시와 연계된 체험교육프로그램도 전시와 유물을 바탕으로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기본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의 주제와 진행에 변화를 주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전시 관람과 체험활동을 같이 할 수 있고 체험활동 장소를 교육실에서 전시장까지 확대시켜 전시, 유물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활발한 교육프로그램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교육실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창의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하였다.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전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후의 전시연계 교육은 소장품 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방학에도 꾸준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전시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더 많은 관람객들이 우리 '과거'와 '현재'의 전통과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열린 대중과 호흡하는 박물관의 모습으로 계속 변화하고 노력할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 안내

교육프로그램 문의 | 이정선, 윤효정
Tel. 02-3277-3152

2008-2009년 <비움과 채움> 소장품전에서는 언제든지 박물관의 명품 소장품을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박물관에 찾아온 관람객들이 원하는 시간에 전시 설명을 들으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개인관람객은 박물관에 와서 1층 로비의 도슨트에게, 단체관람객은 미리 예약을 하면 언제든지 전시설명을 들을 수 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생과 본교의 학생 및 교수님, 외국인까지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여 우리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물 속에 담긴 지혜와 멋을 느낄 수 있는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

전시와 연계되어 체험을 위주로 한 「전시체험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추억이 담긴 박물관 이야기책 만들기」, 「옛 선비들의 애장품 접선 만들기」가 기획되어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를 살펴 보면서 각 관의 전시 기획의도와 소장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야기책'과 '접선(접는 부채)'에 다양한 재료로 그림을 그리고 기록하면서 박물관에서의 추억을 담고 나만의 개성을 표현해볼 수 있다. 또한 「전시체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실도 전시 개막과 함께 화사하고 새롭게 단장하여 더욱 활기찬 교육프로그램 시간이 되고 있다. 「전시체험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10월 11일(토)을 시작으로 노는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 모님들과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자녀들과 대학생, 일반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1. 「박물관과 어린이」교육에 참가한 유치원생들이 유물모양의 모형을 직접 손에 들고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2. <탐매... 매화를 찾아서>특별전과 연계된 「탐매 등산」. 전시를 통하여 옛 유물에서 보았던 매화를 찾아 북한산에 등산하여 매화꽃을 직접 보고 작가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특별전의 「우리는 어린이 고고대, 잃어버린 옹기를 찾아라」에 참여한 아이들이 유물복원전문가와 함께 옹기를 복원하고 있는 모습
4. <도요지 발굴성과 20년>특별전과 함께 진행된 가마터 답사
5. 영암도지문화센터 특별전 <집의 숨·집의 결>과 연계된 영암 구림마을의 「아름다운 집·아름다운 길 선정」
6. 상설전시관의 <文字-문필에 흐르는 藝>전시와 연계된 「문자가 춤추는 입체카드 만들기」

기증 소식

기증 문의 | 학예연구실 박기희
kihipark@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을 처음 본 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1993년 어느 봄날, 중학생이었던 나는 특별활동 역사탐구반의 견학 덕분에 공부쟁이 얼음아가씨들이 모여 있을 것 같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여대생'들을 구경했었고 이대 앞의 아기자기한 골목과 가게들을 지나보았다. 놀이동산에나 있을 법한 기차 길 위의 다리를 건너 들어간 바로 옆에서 내가 마주친 것은 박물관이었다. 마치 로봇 태권V가 이화여자대학교 안의 작은 숲속에 몸을 숨기고 얼굴만 내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로부터 4년 후 법학과에 입학하게 되면서, 채플에 늦지 않으려고 이화광장을 질주하던 때에도, 또 다시 4년 후 동생이 법학과에 합격하여 처음으로 학교에 오던 날 선배행세를 하면서 이화동산 구석구석을 탐험시키던 날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박물관을 잊고 지내왔다.

그 후 몇 년 만에, 박물관을 다시 보게 된 것은 2년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올해 여름이었다. 6월의 마지막 날, 지병으로 오랫동안 외출을 못하던 엄마와 함께 가족 모두 새롭게 단장한 이대교정을 구경하러 나들이를 가게 되었다. 다시 만난 박물관은 이번에는 ECC라는 활주로를 달려 비행을 준비하는 로봇 태권V로 보였다. 본관으로부터 정문 쪽으로 ECC를 걸어 오면서 엄마는 박물관 앞에 꼭 가보자고 하였고 그 앞에 모이놓은 동자석상을 몇 번이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특히 누군가의 기증물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더욱 흥미를 보이시더니 우리 집 정원에 있는 돌들도 학교 박물관에 기증하기를 원하셨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은 10개의 옛 돌을 정원에 놓아두셨다. 고 미술품 수집이 취미이셨던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남겨두신 화강석들이었다. 조선시대 건물의 주춧돌로만 알고 계시던 부모님은 정원에 이 돌들을 늘어놓으셨고, 초등학교에 다니기 전까지 동생과 나는 그 돌들을 무대삼아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소꿉놀이 식탁과 부엌으로 삼으며 많은 시간을 정원에서 보내곤 했었다. 수험생이 되어서는 돌 위에 앉아서 엄마는 모든 하소

박희진 · 박효진 자매가 고석(鼓石)과 향로석을 본 박물관에 기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은 전통 문화 발전과 학생 교육에 기여하고자 개인 및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자료의 기증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연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달래주곤 하셨다. 즐겁고 신나는 추억과 함께 고등학교 시절 쓸쓸하고 외롭던 추억까지 모두 함께 한 돌들에게 엄마는 특별한 애착을 가지셨고 때때로 옛날의 일화들을 꺼내어 말씀하시며 나와 동생을 웃게 하기도 하셨다.

엄마는 그 동안의 지병으로 인해 지난 9월 우리 가족의 곁을 떠나셨다. 지금도 믿음직할 만큼 둥글고 묵직한 10개의 돌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어떠한 화도 짜증도 모두 묵묵히 들어주고 달래주신 엄마의 앓은 자리가 느껴진다. 다시 그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 엄마는 다시 그때와 같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 모습을 사진에 담으실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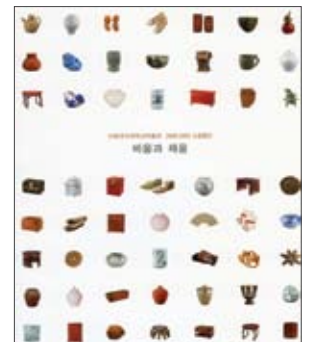
엄마는 지난 8년간 동생과 나를 성장시켜주고 보살펴 준 이화여자대학교를 매우 사랑하셨다. 이제 우리 가족은 엄마가 생전에 원하시던 대로 우리 세 모녀의 지난 23년간의 추억과 애정이 담긴 돌들을 박물관에 기증하고자 한다. 동생과 나의 어린 시절 큰 사랑으로 지지해주고 보호해주신 엄마처럼, 마치 로봇 태권V가 언제든지 우리들을 구해주고 지켜주듯이, 이제 모교의 박물관이 엄마와 우리 자매의 추억과 사랑이 담긴 돌들을 이화동산에서 지켜주고 보살펴주시기를 소망한다.

기증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생 박희진, 박효진 자매

아트샵 소식

아트샵 상품 문의 | 박수미
Tel. 02-3277-3237

가을학기를 맞아 새로운 가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블랙에 블루 또는 브라운을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위쪽에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작은 포켓도 디자인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에서 발간한 도록도 아트샵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서점에 들르지 않아도 주요도록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삼을 찾는 방문객들의 도록구매가 한결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2008-2009 <비움과 채움>전 팜플렛

독자의견 | 박물관 문화에서 독자의견을 받습니다. 투고를 원하시거나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 이주은 leejoeeun@ewha.ac.kr Tel. 02-3277-3676, Fax. 02-3277-3153

도슨트 소식

도슨트 지원 문의 | 학예연구실 이주은
leejooeun@ewha.ac.kr

낮선 전시장에 들어서면 모두들 으레 팜플렛을 집어 들고 전시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나마 숙지한다. 유물은 여러 가지 이야기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유물에 대해 많이 알수록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전시되어 있는 유물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 박물관이 딱딱하고 어려운 곳이라는 선입견을 가진다. 그래서 도슨트는 사람들에게 주제에 맞게 유물을 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그에 맞게 정보를 선별하여 전달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전시를 즐길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슨트로 근무하는 동안 나는 많은 시간을 전시장 안에서 작품들을 지켜보며 작품의 새로운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간혹 근무 기간 내내 도슨트들을 긴장시키는 작품도 있다. 특히 바닥에 놓여 노출되어 있었던 윤석남 선생님의

재래시장은 관람객들이 거부감 없이 만지곤하는바람에 관람객이 전시장 안으로 들어갈 때면 도슨트도 항상 관람객을 따라 움직여야 했다. 작품과 관람객을 함께 지켜보면서 나는 사람들이 작품 앞에 쏘그린 자세로 앉아 마치 진짜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작품을 관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 접할 때는 그저 시장의 풍경 정도로 지나쳤던 작품이 관람객과 만나며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2008년 8월 제 11기 도슨트 24명이 선발되어 2주일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슨트는 6월과 12월에 모집하여 교육 시간을 포함 총 200시간을 근무한 후 수료하며, 수료 후에는 경력을 인정 받게 됩니다.

들었다. 작품에 대해 글로 읽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시간 전시를 피부로 느끼면서 알아가는 작품의 새로운 모습들은 단순하게 작품을 보고 읽는 것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이유를 가지고 박물관을 찾는다. 대학 박물관의 특성상 관람객들에게 '교육적인 면에서 관람을 유도하는 것이 도슨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3학기에 걸쳐 도슨트로 봉사하며 어떤 교육과 봉사도 일반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을 통해 관람객과 만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의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겪은 도슨트 활동은 관람객에게 표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그 정보에 가려져 쉽게 볼 수 없는 내면적인 정보를 관람객들로부터 받으며 완성되었다.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전시 정보 팜플렛을 제공하고도 도슨트제도를 채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보는 전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 소통의 중심에 도슨트가 있다.

11기 도슨트 박주영

소장품 이야기 | 백자청화 매조죽문 향아리(白磁靑畫梅鳥竹文壺)

윤효정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 yhyojeong@ewha.ac.kr

송죽매松竹梅는 흔히 '세한삼우歲寒三友'라 불리며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중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문인들의 애호를 받으며 회화나 도자기 문양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특히, 도자기에서 송죽매는 중국 원대에 청화백자의 주요 문양소재로서 등장하여 명명 선덕연간宣德年間(1426-1435)에서 성화 연간成化年間(1465-1487)에 크게 성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후기부터 도자기의 문양소재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조선전기에도 청화백자의 대표적인 문양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중국의 경우 '세한삼우'라는 개념에 보다 충실한 듯 송죽매의 세 소재가 항상 일체화된 세트를 이루는 문양구성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표현에서도 도안화된 패턴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우리 청화백자에서는 송죽매가 세트로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고 송죽매의 세 소재를 다양하게 결합한 매죽문梅竹文, 송죽문松竹文, 송매문松梅文 등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매죽문梅竹文이 크게 선호되었다. 또한 송죽매에 참새나 까치 같은 새들을 결합한 송조문松鳥文, 매조문梅鳥文, 매조죽문梅鳥竹文도 즐겨 사용되었다. 이러한 문양들은 시기적으로 조금 더 늦게 출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새들의 다양한 모습이나 포즈, 송죽매와 어우러진 변화감있는 구도를 통해 강한 서정성을 나타낸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백자청화 매조죽문 향아리>는 그 훌륭한 예의 하나로 직립한 구연은 살짝 내경內傾하고 어깨에서 최대로 팽창했다가

서서히 좁아져 저부에서 살짝 반전을 이루는 조선전기 향아리의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청화선으로 구현된 저부로부터 꽃과 꽃봉오리들이 풍성하게 달린 두 줄기의 매화나무가 기면을 감싸듯이 뻗어나가고, 그 아래로 매화 가지가 미치지 못한 빈 공간을 메우듯 두 그루의 소략한 세죽細竹을 포치하였고, 어깨에는 매화와 어우러진 새들이 그려져 있다. 구연부에도 원문양圓文과 소용돌이형 나선문양이 교차되는 변형 연주문대聯珠文帶가 시문되어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팽창되어 확장된 화면을 이루는 어깨에 그려진 네 마리의 새들이다. 머리를 파묻은 채 졸고 있는 모습, 나무에서 지저귀는 모습, 다른 가지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 그 새를 바라보며 지저귀는 모습의 각기 다른 포즈를 취한 이 네 마리 새들의 변화있는 모습과 자세는 보는 이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긴다. 선명한 청화의 발색이 돋보이는 사실적이고 섬세한 새들의 모습은 순백의 유색과 어우러져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준다. 이는 매조죽문이 시문된 다른 어떤 예들에서도 보기 힘든 특색있는 모습이다.

중국의 영향 하에 태어났으니 그와는 다른 미와 특색을 지닌 도자기로 거듭 태어난 조선의 청화백자, 특히 조선전기의 청화백자는 송죽매로 대표되는 문인화적 소재의 다양한 사용과 전문화가인 화원畫員들의 유려한 붓질이 그려낸 회화에 필적하는 수준높은 陶畵라는 우리 청화백자만의 미덕과 가치로움의 전형이다. 이 <백자청화 매조죽문 향아리>는 그 훌륭한 예로서 소중한 간직되어야 할 존재인 것이다.



소장품 갤러리

백자청화 매조죽문 향아리(白磁靑畫梅鳥竹文壺)

조선 16세기 전반, 높이 27.8, 입지름 10.3, 바닥지름 15.5cm



박물관문화

통권 제14호 | 2008년 10월 31일 발행 |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26 대현동 11-1 | Tel. 02-3277-3152 | <http://museum.ewha.ac.kr>